

since 1986

# SUNBO FAMILY

VISION 2015 |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2013년 1월 15일

vol.108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 힘찬 출발! 꿈과 희망의 2013.

“雨垂穿石” (우수천석)

즉시 할 일은 즉시, 각종 절점은 무조건 지키자.

### 2013. SUNBO Family 신년사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계사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사랑, 축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고, 뜻하는 모든 소망이 루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업장은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한 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단결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뱀띠해입니다. 뱀은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며, 많은 새끼와 알을 낳는 것에 기인하여 풍요와 재물, 집안의 복을 가져다 주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계사년의 기운으로 선보는 지속적인 사업영위와 성장 발전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는 넉넉하고 풍요롭고 화목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신년화두는 “雨垂穿石”(우수천석)으로 “빗방울이 돌을 뚫는다”라는 뜻입니다. 즉시 할 일은 즉시, 각종 절점은 무조건 지키자는 굳은 결의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그날 할 일은 그날 나무리를 짓고 퇴근하는 일일결산상품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였으나 실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난해 도면지연과 A/S 처리지연으로 회사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무사안일의 사고를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극심한 조선 불황 속에서도 매출액 1730억 원 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10%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회사는 성장 발전해 나가야 하기에 금년도 매출목표를 1800억으로 정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70년대 말부터 30년간 이어진 조선호황 이후 지금의 불황은 깊지만 합니다. 앞으로 더 조선불황이 깊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세계경기가 회복할 수 있는 호재가 없으므로 어쩌면 미래보다는 지난해가 조선 산업의 호황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존과 성장을 위해 변화된 환경과 조건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사업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의 매출성장은 33,000평의 구평1공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납기, 품질, HSE 등 분야에 걸쳐 많은 문제와 함께 실패 비용 및 일반관리에 대한 비용이 대폭 증가하면서 우리의 수준과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 한 해였습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경영환경 속에서 살아남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정해진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는 기본에 충실해야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적기도면출도, 적기적소 자재조달, 적기생산, 우수한 품질, 고객만족입니다. 최소한의 고객만족이 있어야 영업활성화가 이루어 집니다. 그다음 원가절감입니다. 각종 절점을 준수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에 원가 절감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조성됩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고 살아남아 성장의 기반 조성을 위해 다시 강조합니다.

**첫째, “명품 모듈” 생산입니다.** Package unit 대명사는 선보였으며 세계최강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만들었고 고객에게 사랑을 받았습니 다. 우리의 인일한 태도로 인해 납기 지연, 미 작업, A/S발생으로 고객에게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적기도면출도, 설 계 5대 오작 발생근절 운동에 대한 결과는 무

엇인가요? 도면 출도율, 적기적소 자재공급 율, 제품완성도, A/S감소율 모든 지표가 담보 혹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3대 중점추진사항이 무엇이고 5대 Zero화 운동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있는지요? 명품모듈 생산에 앞서 명품모듈 생산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부터 조직별로 다시 답습 부터 시작하여 행동으로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고객만족” 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회사”라는 슬로건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 전략을 펼쳐왔으며 2010년부터는 “고객은 신이다”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우리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고객만족의 기본은 약속 준수 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고객이 영업을 방해하는 회사가 되지 않으려면 “고객만족”을 위해 각 조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합시다.

**셋째, HSE 준수를 통한 “독색사업장 조성” 입니다.** 건강을 잃는다면 인생의 모두를 잃게 됩니다. 나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모두 불행하게 만들고 맙니다.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안전 생활화와 안전작업장 조성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환경은 고객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반듯이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극한원가 실현을 통한 기존제품의 “경쟁력강화” 입니다.** 우리는 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발주물량급감과 수주가 하락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깊은 불황에도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명품모듈 생산은 물론 초저원가의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노무비와 자재비상승을 인정하고 Loss와 낭비를 없애 원가를 절감하고 최고수준의 명품모듈생산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 올려야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 다각화” 를 통한 신규 영업 창출 입니다.** 사업다각화는 도약을 위한 필수입니다. 해양플랜트사업은 4년에 걸쳐 준비해왔으나 SHWE 프로젝트와 비올리아 프로젝트에서 많은 문제와 기술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도전정신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살기 위한 생존의 각오와 정신이 필요합니다. 신제품개발은 개발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여 개발품목을 정하고 개발완료 후 시장형성까지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필요합니다. IFS 또한 신규개발 품목과 동일선상에서 보수적인 관점과 적극적인 관점의 양면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극복이 아니라 생사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변화와 혁신에 있어 구호와 행사에 따르는 행동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 습니다. 그 결과 27년 동안 외형적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수주한 물량을 생산하는데 주력하다보니 미래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여 계획된 목표를 반드시 달성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보다 한걸음 빨리 행동하여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읍시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위대한 선보인입니다. 정해진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여 우리 모두 풍요롭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어서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해 우리 모두 한 마음 하나 되어 우렁찬 합성과 박수와 함께 꿈과 희망의 달을 올리고 우리다 함께 계사년의 힘찬 항해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2일

SUNBO Family 총괄 대표이사 최 금식

RUN SUNBO RUN 신년사



## 2013년 임원진 신년사



### “조선 불황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시작 합시다.”



부사장 | 최상식

희망과 기회의 계사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사업 안정과 재도약발판의 기반을 구축하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계 조선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보다는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더 큰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건설을 위한 “Vision 2015”원년입니다. 이를 위하여 SUNBO Family 총괄 대표님께서 “Vision 2015” 원년 신년화두 “雨垂穿石”(우수천석)을 내려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빗방울이 돌을

뚫는다”라는 뜻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조선기자재 업체는 모두 긴축경영과 함께 신규투자를 중단 하였으나, 우리 회사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창사 이래 최대규모의 투자를 결정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雨垂穿石”(우수천석)으로 사업목표달성을 위해 우리가 정한 결의문과 선보인의 10계명을 실천한다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 조성과 무재해 달성, 명품모듈 생산, 해양 플랜트 사업 안정

은 물론 우리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는 ‘Vision 2015’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다한 최선으로 안전 작업장 조성, 명품 모듈 생산과 해양 플랜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힘차게 출발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계사년을 위해 힘차게 첫발을 내딛읍시다. 마지막으로 선보가족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축복 받는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선보가족 모두 하나되어 2013년 경영목표 달성합시다.”



부사장 | 곽종렬

선보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알차게 계획했던 목표를 실천하여 꼭 달성토록 노력 바랍니다. 2013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많은 과제가 놓여 있지만 선보가족 모두가 하나되어 주어진 과제를 힘을 합쳐 실천 한다면 경영 목표는 반드시 달성 가능 하리라 굳게 믿습니다. 금년은 조선소 공히 상선 부분의 수주는 작년 대비 절반 정도여서 조선 기자재 회사의 경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치열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생존

전략은 조직별 책임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명품 모듈 생산을 조기에 정착하고, 녹색 사업장 정착, A/S 제로화, 적정품질 수준 달성,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정신으로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각 공장별 KPI 목표 지수 달성을 하여야 합니다. 해양 부분에서는 작년 많은 어려움과 시행 착오가 있었습니다. 2013년 각자가 새롭게 마음을 추스르고 힘찬 도전을 합시다.

최우선으로 안전 보호구 착용 생활화입니다.

안전을 바탕으로 기본 절차서에 준하여 작업 표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해양 사업의 지속적 인 수주와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선보 가족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행복의 열매입니다. 이제는 작은 것부터 행동으로 실천하여 조직별 목표 달성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며 한해를 달려갑시다.”



전무이사 | 최홍렬

2013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12년은 어려운 조선경기의 불황 속에서 선보인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10% 매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일반상선보다 해양호선 비중이 증가하면서 품질과 납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성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은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조선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한해가 예상되

며, 모기업들도 위기돌파, 원가절감 등을 사업계획으로 정할 만큼 살아남기 위하여 총력하고 있습니다. 기자재업체 또한 건조척수의 감소로 전년 대비 20~30% 축소된 물량 속에서 일감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생산성 향상 의지와 위기극복을 위한 열정 그리고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은 반드시 목

표 매출 달성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기본기를 튼튼히 하고 최고의 품질과 납기준수, 그리고 경쟁력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계사년 새해 뜻하시는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며 한해를 달려갑시다.

### “즉시 실천하고 소통하는 한 해가 됩시다.”



전무이사 | 진병석

사랑하는 선보 가족 여러분, 2013년 계사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선보 가족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합니다. 지난 2012년은 신 성장 동력으로써의 해양 플랜트사업에 진입한 원년으로써 무재해 사업장, 절점관리 능력 향상, 품질 신뢰도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해양 플랜트 사업부 전 임직원이 매진

하였으나 실행 성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2013년 새해에는 대표이사님 신년사에도 언급되었듯이 우수천석(雨垂穿石) 즉 “빗방울이 돌을 뚫는다”라는 신년화두 아래 주어진 일에 대해 즉시 실천하고 실행된 결과를 관련자 모두가 공유하는 소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쾌적한 작업장 환경을 조성하므로써 무 재해를 실현하는 사업장, 선주 신뢰를 줄 수

있는 품질경영, 고객만족 설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납기 준수를 바탕으로 해양플랜트 공사 수행에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사업장을 구축함으로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실상부한 해양 플랜트사업의 선두 주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다시 한번 선보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전무이사 | 강윤규

요즘의 화두는 우리 모두를 어렵게 하는 세계 경기불황일 것입니다. 우리 회사도 그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해 모두가 고군분투하고 있고 해양 및 육상 플랜트 분야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보는 우리만의 전문화된 기술력으로 고객사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왔고 이를 바탕으로 크게 성장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학 ‘짐 콜린스’는 최근의 저서 ‘위대한 기업의 선택 (Great by Choice)’에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위 10X 기업(시장 평균 수익보다 30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하고 그 중 동종 기업보다 최소 10배 이상 주가가 높은 우수기업)들의 공통점은 광적규율, 실증적 창의성, 생산적 피해망상 등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한때 쇠락하던

애플은 규율이 엄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언제 밀려날지 모른다는 절박한 생산적 피해망상으로 자신을 채찍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객사들은 해양 플랜트 생산 입지조건이 우수한 구평1공장 야드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좋은 기회이자 큰 경쟁력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여 다시 한번 큰 성공으로 올 수 있도록 모두 합심하여 힘차게 출발합시다.

RUN SUNBO RUN 신년사



# 2013년 임원진 신년사



## “백 마디 말 보다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상무이사 정호경

존경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3년은 더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 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12년은 정말 어렵게 보낸 한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객이 발길을 돌리고 명품 모듈도 완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 해가 지났습니다. 새해는 전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명품모듈을 성공시켜 고객이 다시 감동 받아 돌아올 수 있게 하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백 마디 말 보다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선보의 스타일로 지금의 어려운 시

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기극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속에 있습니다.”



상무이사 강보영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선보가족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특히, 저희 구평 2공장은 창립 이래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 하였습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으로 EVENT 미준수로 인한 A/S 증가로 고객 불만이 팽배하여 사업 지속이 불가능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힘을 합쳐 지

혜롭게 대처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선보가족 모두의 땀과 결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고자 하는 마음과 노력이 있다면 안될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극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장

은 미완성 제품은 절대 납품을 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100% 작업을 완성하여 납품합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명품모듈” 생산 및 “고객 만족”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단 한 건의 안전 사고없는 건강하고 밝은 작업장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 합니다.

## “2013년은 고객 만족 설계의 해”



상무이사 공성문

선보 가족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해 최악의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 업계가, 올해도 상선 시장에서 큰 폭의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난항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리 또한 지난 해 매출 달성이 80%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위기상황 일수록 설계와 품질은 기본에 충실하

고 원칙을 준수하면, 고객 불만 처리 비용과 실패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 설계 부문 슬로건은 “고객 만족 설계의 해”로 정했습니다. 내부 고객 만족은 좋은 품질과 적기 납품이 이루어질 것이며, 외부 고객 만족은 고객이 영업을 창출할 것입니다. 고객 만족 설계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

고 잔업 없는 설계부를 만들 것이며, 멘토링제를 실시하여 지속적 성장 발전을 도모할 것 입니다. 표준화를 활용한 원가 절감을 할 것이며, 현장 패트론을 통한 후속선 반영을 하여, 2013년에는 생산을 리드하는 기술력과 막힘없는 소통으로 명품 모듈을 설계 할 것입니다. 우리 설계부는 땀의 기적을 믿습니다.

## “올 한 해는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로 시작해봅시다”



상무이사 이규현

언제나처럼 새해는 밝아왔고 우리 또한 해마다 거창한 구호와 다짐들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매년 비슷한 구호와 다짐들을 타파하여 정말 실현 가능한 구호와 다짐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데 누가 무엇이라하며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을 원망하면 내 마음이 구겨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잘 풀립니다. 또한 세상도 밝아지게 마련입니다. 올 한 해는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로 시작해 보는 것을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만 결들인다면 주인의식입니다. 연극 무대 위의

연극이 끝나면 관객은 외투를 챙기고 주인은 청소 도구를 챙긴다고 합니다. 일을 하며 진정 내가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쯤 뒤돌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랑스런 선보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뽀짝 되기를 바랍니다.

## “더 행복한 일을 만들수 있는 아름다운 2013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사 임영삼

연초부터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조선불황, 물량감소 등 경제불황이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계사년 한 해는 내가 먼저 꿈꾸고 내가 먼저 믿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나눔으로써 나눌수록 더 커지는 기적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소 아쉬

움이 있었다면 기본 준수가 미흡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기본준수가 밑바탕이 되어 정해진 것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하는 선보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앞날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만 미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조

금이나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오늘의 삶,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성실하면 앞날에 분명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2013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2013년은 최고의 성과와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사 이청수

현재 조선경기의 불황은 2009년을 시작으로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선보는 생산성 향상, 공법개선, 신규사업개발 등으로 불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기에 해양사업 정착, 감천 1공장 설립, 매출향상 등 감히 다른 기업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성과를 이루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어떤 어

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선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합심하여 대응해 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영도공장은 13년 전반기의 LOAD 저하를 기회로 삼아 공장 정비와 안전을 재정립하고, 후반기의 OVER LOAD에 철저히 대비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시켜 DECK BLOCK 월 1.5척을 우리의 적정CAPACITY로 적응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실행해야 될 것 입니다. 계획과 준비 없이는 품질과 고객만족이 있을 수 없고 안전 또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VISION 2015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13년은 최고의 성과와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모든 선보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RUN SUNBO RUN 역사소식

# 2013년 연말 포상자 명단



- 경영대상 | 임명상 : 영암공장을 최적의 생산시스템으로 구축 및 모기업 A/S를 성공적으로 완수함.
- 경영대상 관리부문 개인 | 유무성
- 경영대상 공장부문 개인 | 김광욱
- 경영대상 공장부문 단체 | 구평2공장
- 경영대상 관리부문 단체 | 기술영업
- 경영대상 공장부문 우수 | 영암공장
- 경영대상 설계부문 우수 | 설계2팀
- 경영대상 반생산 개인 | 1공장 배희진
- 경영대상 반생산 개인 우수 | 1공장 안태주, 영암공장 정봉주

- 경영대상 반생산 단체우수 | 1공장 출하준비반, 영암공장 조립반
- 특별상A | 김태호 : 군산공장 전년도 발생 A/S 처리
- 특별상B | 이경식 : 미포포상으로 인한 회사홍보효과
- 사외상 | 최동배, 임우택, 김광욱, 장형구
- 모범상 | 영암 최경식, 본사 이기환, 설계 문중현 | 2공장 최홍순, 구평2 박춘복

- 우수상 | 지원 황수영, 최두영, 보증 방대혁, 이현수, 자재조달 황지석, 김혜민 | 설계 여인환, 고중현, 이우석, 유성진, 광봉제, 정준영, 오충석, 영업 박종혁 | 개발 박기태, 유진아, HSE 김상진 | 1공장 최원석, 허준, 차성오, 김정민, | 2공장 정상규, 장상권, 3공장 최광욱, 임종하, 지기환, | 영암 송인환, 김대영, 문형오, 마헤시, 군산 이혜원 | 구평2 김형우, 김영호, 영도 박우근, 이영곤 | 구평1 허정모, 문건우, 김창범, 정재현, 박홍권
- 우수협력사 | 영암공장 태연, 구평2 태성

## SUNBO NEWS 선보뉴스

# SUNBO & IFS, Joint Venture 교육파견



김희태 과장 | 박귀남 부장

지난 2012년 7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6개월간 미국 IFS사로 파견 되었던 우리 회사 해양영업부의 박귀남 부장과 김희태 과장이 무사히 업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번 출장은 우리 회사 사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베이직 기술력을 IFS사로부터 교육 받고 습득하는 것과 동시에 IFS사와 함께 진행 중인 SUNBO & IFS, Joint Venture의 업무진행을 목적으로 하였다. 박귀남 부장은

프로세스패키지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핵심 엔지니어링을, 김희태 과장은 고객사에 기술력대응과 견적, 초기 가격결정 등에 대한 기술영업을 중점적으로 교육 받았다. 우리 회사는 프로세스패키지의 엔지니어링을 IFS사가 가진 기술력에 전적으로 기대던 과거와는 달리 SUNBO & IFS, Joint Venture를 만들어 핵심 기술을 우리 기술로 정착시켜 여러 프로세스패키지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Joint Venture는 선보의 엔지니어링컴퍼니가 되는 셈이다. SUNBO & IFS, Joint Venture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게 될 해양플랜트 아이템인 프로세스패키지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 할 예정이다. 박귀남 부장은 "엔지니어링이라는 것 자체가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할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며 이번 파견교육에 대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선별될 사업에 대해서도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Joint Venture를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영업 중에 있으며 2월에는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패키지 중 Fuel gas treatment package, Chemical injection package 이 두 가지를 메인 아이템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후 다양한 패키지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프로젝트가 됩니다." 김희태 과장은 IFS사에서 여유로움과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느꼈다고 한다. "IFS사는 마치 디자인회사와 같은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겠지요. 하지만 그런 점이 디자인과 같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발상하는 데 있어 개인의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이 생겨 업무에 반영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견기간 중 휴스턴과 달라스, 뉴올리언스의 일정을 소화하며 마주했던 끝없이 펼쳐진 미국 대륙에 압도되었던 경험을 기억하며 그만큼 크고 넓은 포부를 가슴에 담자고 다짐했다는 박귀남 부장과 김희태 과장. 그들에게서 우리 회사의 보다 발전된 미래를 읽을 수 있었다.

RUN SUNBO RUN 역사소식

2012년 수상 및 인증

올 한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노력을 모아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각종 인증, 수상 등으로 그 결실을 이루었다.

01 선보하이텍, 영암테크노폴리스 경영자협의회와 '영암사랑 협약' 맺어



우리 회사는 2012년 1월 10일, 영암테크노폴리스경영자협의회와 '영암사랑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은 영암쌀 우선 구매와 장학금 기탁 등 영암사랑 실천에 앞장서 나가기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참여 기업 중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77개 기업은 영암쌀을 구내식당에 이용하기로 했다. 우리 회사는 영암군민사랑 장학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02 체육진흥을 위한 노력으로 부산광역시로부터 공로패 수여



최금식 대표이사는 지난 2월 10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우리고장 체육진흥을 위하여 2009년부터 2년 3개월 동안 부산광역시 산악경기연맹 회장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우수 체육인재 양성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우수 체육인재 양성뿐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03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원가절감상 수상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10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원가절감상을 수여받았다. 원가절감상은 생산성 향상 및 혁신활동으로 모기업 원가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한 협력사에 수여하는 상이다. 우리 회사는 꾸준히 실행예산 제도를 통하여 원가절감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원가개선 노력 및 품질향상 활동을 통해 고객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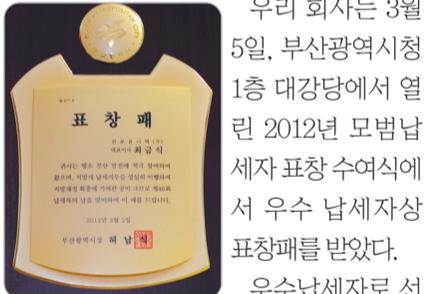
의 동반 상생관계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이다.

04 최홍렬 상무이사,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최홍렬 상무이사는 지난 2월 23일 파라곤호텔에서 열린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제 32회 정기총회에서 조선 및 해양기자재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했다. 최홍렬 상무이사는 총 9건의 특허출원과 크루즈선용 SILENCER, STURNTUBE UNIT 등 다수의 해양플랜트용 기자재 개발을 주도해나가며 회사 매출 증대와 국내 조선기자재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05 부산광역시 우수납세자상 수상



우리 회사는 3월 5일,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2년 모범납세자 표창 수여식에서 우수 납세자상 표창패를 받았다. 우수납세자로 선정되면 부산은행과 농협을 통한 대출 또는 예금시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율이 0.1% 경감되는 혜택이 1년간 주어진다. 또 세무조사가 3년간 유예되고 부산시가 운영하는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06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감사패 수여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22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있었던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여 세계 최초로 선박건조 1억GT 달성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한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특히 이번 감사패는 2000여 협력업체 중 5개 업체만 선정되었으며, 우리 회사는 신공법인 모듈화 개발로 현대중공업의 공기 단축에 기여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해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간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다.

07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 "이 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2년 6월 "이 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예선 여섯 번째 수상자인 최금식 대표는 30여 년간 선박 모듈 유닛(Module Unit) 개발에 매진, 선박의장품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게 되었고, 조선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기술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을 바탕으로 오늘에 이른 최 대표이사는 기능인 후배들에게 "누구나 도전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기능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기능인이 되려면 부단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차원이 아니라 그 기술로 자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앞으로도 최금식 대표는 핵심기술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해양플랜트 분야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08 현대삼호중공업으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동반성장 우수회사 표창



우리 회사는 지난 8월 21일 현대삼호중공업의 협력사로서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도 상반기 동반성장 우수회사'로 선정되어 상장을 수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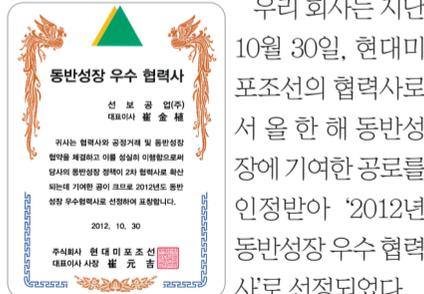
최근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조선 경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자 업계에서 모기업과 협력사간 상생을 위한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삼호중공업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우수 협력사를 선정, 표창한 것이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현대삼호중공업의 우수협력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09 본사 최금식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수상



지난 9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조선업계 최대 행사인 '제 9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에서 최금식 대표는 30여 년간 조선산업에 종사하면서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개발과 우수 품질의 조선기자재를 공급하여 대한민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조선기자재산업의 태동기인 1986년에 남영공업사를 창업하였다. 선박용 여과기 STRAINER와 소음기인 SILENCER 생산을 시작으로 1996년 선보공업(주)로 법인 전환을 통해 선박용 여과기인 Package Unit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MODULE UNIT, 선박용 블록, 해양플랜트 기자재 등을 국내 대형조선소에 공급해오고 있다.

10 우리 회사, 현대미포조선 동반성장 우수 협력사 선정



우리 회사는 지난 10월 30일, 현대미포조선의 협력사로서 올 한 해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동반성장 우수 협력사'로 선정되었다.

우리 회사는 평소 협력사와의 동반 상생을 위하여 추석, 구정, 하계휴가 등에 앞서 자금을 조기 집행하고 환경개선 및 기술력 향상을 통한 생산력 증대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해왔으며 또한 성과 공유제를 통하여 개선효과금의 30%를 협력사에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이번 표창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동반성장의 시너지를 위해 우수 협력사로서 책임을 다하게 될 것이다.

# 2012년 주요 행사 및 뉴스



### \* 미국 IFS사의 필터유닛 성공적 납품 완료

IFS사의 연료여과기 필터 국내생산 독점계약 체결에 따른 시범적 납품

9월 1일 미국의 IFS사로 수주받은 CCP유닛, 육상플랜트인 화력발전소용 연료여과기(제품제원 : 필터(여과기) 5000\*4000\*6000, 4set)를 싱가포르 성공적으로 납품했다. 우리 회사는 2011년 12월 IFS와 조인트 벤처 협약식을 맺고 이를 통해 IFS사의 제품을 국내에 독점공급하게 되었는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우리 회사의 생산, 관리 능력을 입증 받게 되었다.

이로써 육상플랜트 부문에서 실전 경험을 축적했으며 이를 계기로 시장 다변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 회사는 IFS 미국 본사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위해 담당자 2명을 미국 현지로 상주 파견하고 있다.

### \* 10월, SNX Project 선주사인 CHEVRON사의 품질매니저, 우리 회사 현장 방문

10월 31일 SNX(H.6051-South Nemba Auxiliary) Project와 관련하여 선주사인 CHEVRON의 품질매니저 데이비드 아웃웨이트(David Outhwaite) 씨가 구평2공장 해양 생산 현장 작업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CHEVRON사의 SNX IIF Vision을 협력사가 다 함께 공유해서 사고 없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대우조선의 선보 담당 김태환 감독관과 HSE담당인 김태곤 감독관이 함께 방문하였다.

데이비드씨는 전반적으로 작업 현장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낸 가운데 참가자 전원을 비롯하여 우리 회사 모든 사원들에게 SNX IIF Vision이 전해져서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 신성장 동력 해양플랜트의 메카가 될 구평 1공장 본격 가동



우리 회사는 지난해 2월, 사업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육상 및 해양플랜트 분야로의 진입과 글로벌 회사로의 성장,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3만 3천 평 규모의 구평 1공장 도장공장과 조립공장을 준공했다. 우리 회사는 도장공장 신축으로 대형구조물의 포장 및 제작물류비 절감, 시추단축을 통해 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국내 우량 조선사 및 대형사들의 해양플랜트 사업 확장에 발맞추어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구평 1공장은 우리 회사의 '제3의 창업' 비전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나아가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 7월 1일, 제26주년 창립기념일 행사 열려



"제 26주년 창립기념일 행사"가 창립기념일인 7월 1일 옥상 교육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창립 26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임과 동시에 "명품모듈 생산"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날로 격화되는 조선 산업의 승자가 되기 위하여 "제3의 창업"을 선언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였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작년에 선언한 "제3의 창업 정신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자"고 강평하고, 명품 모듈을 생산,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무재해 작업장 실현, 사업 다각화라는 세가지 사항을 특히 강조했다.

### \* 11월, 제1회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참가



우리 회사는 11월 14일부터 사흘간 벅스코에서 열린 제1회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에 참가해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고 판로를 모색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이번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에는 국내 4대 대형조선소 및 아커 솔루션, 카메론 등 27개국 400개사(국내 244개사, 해외 156개사)가 참가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국제 해양플랜트 전문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부산시

는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 기간에 15억 3800만 달러(약 1조6900억 원)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2100여 건, 2억2300만 달러(약 2400억 원)는 실제 계약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고 18일 밝혔다.

우리 회사는 세계 해양플랜트 선주와 OEM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전시회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홍보하고 해양기자재 국산화를 통하여 시장진입을 모색하였으며, 조선기자재 업계의 해양플랜트 분야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기술력과 수출 판로 확대 등에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 \* 다양한 문화 복지프로그램 참가로 하나되는 선보가족 확인



우리 회사는 2012년에도 직원복지 향상과 가족친화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갔다. 5월에는 시원하게 낙동강을 달리는 '2012부산하프마라톤대회'에 90여 명의 임직원이 참가했으며, 11월에는 부산 유일의 폴코스 대회인 '제14회 부산마라톤대회'에 30여 명의 임직원이 참가해 전원이 코스를 완주하는 열의를 보였다. 매 회 200장의 관람권을 마련해 직원들과 가족이 함께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행사

는 5월을 시작으로 총 4회 진행되었다. 7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시된 극기훈련 프로그램인 해병대캠프는 참가자들로부터 극한의 상황에서 동료애를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는 평을 받았다. 또 지난 5월에는 우천으로 취소된 선보가족 체육대회를 대신해 '친목 도모와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으로 부문별 워크샵이 진행되기도 했다.

2012년은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외부 행사 참가로 선보가족이 하나임을 확인한 뜻깊은 한 해였다.

### \* 2012년 실적 및 2013년 사업계획 보고회 개최



12월 8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13년을 대비하는 '2012년 실적 및 2013년 사업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2012년 실적과 2013년 사업에 대한 계획 요약발표가 먼저 진행되었으며, 조선 및 해양산업의 동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영업, 설계부 등 지원부서 발표와 공장부문의 발표까지 끝나고 최금식 대표이사의 강평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대표이사 강평 중 해양산업에 대한 비전 준비, HSE를 정착, 신규영업 창출, 명품모듈 생산이라는 4가지 핵심은 선보인들이 2013년에 더욱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었다.

RUN SUNBO RUN 추천여행지

볼해도 다시 가보고픈 추천여행지



지난 한 해 선보가족 사보 <SUNBO FAMILY>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다녀올 수 있는 다양한 여행지와 볼거리들이 소개되었다.

\* 부산의 마추픽추, 감천문화마을



겨울 기운이 아직 완연한 2월에는 산자락 아래 한 폭의 그림처럼 조성되어 '부산의 마추픽추'라 불리는 감천문화마을이 추천 여행지로 선정되었다.

2010년 '마을재생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꾸며져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가.

\* 예술마을의 정취, 대룡마을



3월의 봄기운은 예술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 예술인 마을로 유명해진 죽성 대룡마을에서 느낄 수 있었다. 대룡마을은 기장군에 위치한 전형적인 시골마을인데 마을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으며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곳곳에 들어서 있다.

\* 봄 햇살이 행복한 갈매길 따라 걷기



햇살 좋은 4월에는 복잡한 도심에서 여유롭게 걸으며 사색할 수 있는 부산의 갈매길을 소개했다. '갈매길'은 부산시가 아름다운 해안길을 중심으로 21개의 걷기코스를 조성해놓은 길이다. 각 코스를 따라 천천히 걷다보면 부산의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에 새삼 감탄을 금할 수 없게 된다.

\* 두 바퀴로 달리는 자유의 시간-자전거 코스



자칫 나른해지기 쉬운 5월에는 가족, 연인, 동료들과 함께 자전거의 두 바퀴에 몸을 싣고 달려보자. 건강과 휴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산의 자전거길로 온천천과 수영천 코스, 해운대와 광안리 해안선 코스, 강을 따라 싱그러운 바람을 마실 수 있는 낙동강 하구둑 코스를 안내했다.

\* 여수엑스포로 떠나는 1박 2일 가족여행



2012년 여름은 여수엑스포 열기 뜨거웠다.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엑스포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린 여수엑스포 현장을 살펴보고 생명의 땅 순천의 생태공원도 소개했다.

\*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즐기는 시원한 피서



7월 9일 문을 연 국내 최초의 해양종합박물관이자 최대 규모의 해양문화공간인 국립해양박물관을 다녀왔다. 2만 5천 평의 연면적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된 박물관 내부는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하다. 이미 입소문을 타고 관람객들로 북적이는데 물방울을 형상화한 독특한 외관도 인상적이다.

\* 산과 물, 인심이 맑은 청도에서 즐기는 하루



황금색으로 무르익은 들판과 붉게 타오르는 산허리, 울긋불긋한 꽃과 단풍의 향연. 그야말로 가을은 화양연화의 계절이다. 온 나라가 화사하고 청명한 계절에 감과 소싸움으로 유명한 경상북도 청도를 다녀왔다. 와인터널, 포토랜드 '청도프로방스', 청도교 미디어극장, 운문사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 김해천문대로 떠나는 별자리여행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에는 가벼운 주말여행으로 활력을 찾을 것을 권한다. 11월에는 차가운 날씨와 함께 더욱 선명해진 가을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김해천문대로 안내했다. 김해천문대는 드넓은 평야와 김해 야경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영남 유일의 천문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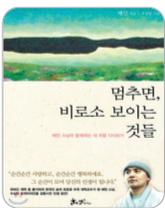
\* 겨울 철새들의 천국, 창녕 우포늪



2012년 마지막 여행지로 소개된 창녕 우포늪은 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이다. 4가지 코스와 우포늪생태관을 소개하였다. 아직 못가본 사람이라면 이 겨울이 끝나지 전에 한번쯤은 다녀올 것을 권한다.

RUN SUNBO RUN 추천 책,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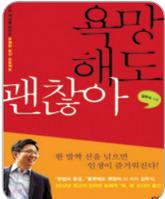
최후를 전부가 추천한 2012년의 좋은책, 유용한 블로그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영혼의 멘토, 청춘의 도반' 헤민스님의 인생 잠언. 인생이 힘들때, 관계가 너무 힘들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이 책을 한번쯤 펼쳐보길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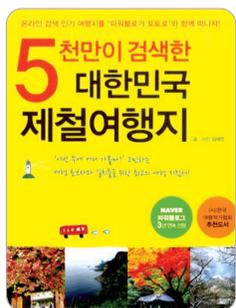
\* **홍차, 느리게 매혹되다**  
당신은 오늘도 인스턴트 커피처럼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커피 대신 몸에 좋은 홍차에 주목해보자.



\* **욕망해도 괜찮아**  
이 책은 저자 개인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지만, 한편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글이기도 하다.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 **헤민스님 블로그**  
<http://blog.naver.com/monkhaemin>  
스님이 쓴 글들과 방송, 강연 일정 등이 소개되어 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손을 놓고스님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토토로의 여행공작소**  
<http://blog.naver.com/babtol2000>  
(사)한국여행작가협회 정회원으로서 기업체 사보 등에 여행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여행작가 김혜영이 운영하는 여행 블로그.



\* 맛있는 레시피가 가득한 곳 **사랑의밥상**  
<http://blog.daum.net/01195077236>  
2011년 다음(Daum) 우수블로그로 선정된 요리전문 블로그이다. 1000여 종의 각종 요리법이 올라와 있다.



\* 함께 나누는 한 잔의 추억 **우리술, 맛을찾아서**  
[http://blog.naver.com/woori\\_sool](http://blog.naver.com/woori_sool)  
우리 술과 등산에 '환장한' 친구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블로그는 술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는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RUN SUNBO RUN 청산릴레이

2012년 칭찬릴레이 열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선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든다! 2012년 11명의 칭찬받아 마땅한 선보의 일꾼이 칭찬릴레이 주자로 선정됐다. 선보의 숨은 일꾼으로, 분위기 메이커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보 칭찬릴레이 수상자를 다시 만나보자.

2월 구평공장 팽창산업 하경원 총무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2012년 첫 칭찬주자로 선정된 구평공장 하경원 총무는 누구보다도 선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배관일과 절단기, 누수호수 점검, 보완작업 등을 진행하는 그는 일을 즐기자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한다. 신발공장 관리사원으로 일하다 우리 회사에 입사했다는 그는 선보의 가족적인 분위기와 서로를 배려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늘 고맙다며 웃었다.



2006년 1월에 입사하여 7년차가 된 배회진 팀장. 그를 우리 회사와 인연을 맺게 한 것은 이경실 팀장이다. 우리 회사에 다니던 친구인 이팀장이 유난히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을 보고 입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일이 힘들수록 동료들을 믿고 동료들과 협동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된다는 생각으로 팀을 이끈다. 누구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일도 사랑하게 된다며 지금도 열심히 배운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바쁘고 힘들수록 서로를 더 이해하고 챙겨주는 동료애를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라는 8월의 칭찬주자 정용수 조장은 이러한 동료애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이란 늘 시작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고 선적을 할 때는 해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며 그것이 바로 ‘일하는 맛’이라며 그는 사람좋은 웃음을 웃었다.



깨 한 허 헌 선임팀장. 최근에 입사한 실습생들에게 안전수칙과 작업장 정리정돈 등 기본부터 가르치고 있는 그는 실습생들이 남 같지 않다며 애정을 보였다. 모든 팀원들이 책임감이 대단해 모두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며 칭찬주자의 공을 팀원들에게 돌리며 고마움을 전했다.

3월 영도공장 용접반 임태형  
“우리 선보가족들이 더욱 행복해지길!”



순수함과 성실함을 모두 가진 임태형 용접사. 그는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일하며 활발하게 일하는 직원들을 보며 같은 식구라는 가족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열심히 일하는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우가 주어지는 멋진 우리 회사에서 오래도록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그는 해양사업으로 본격적인 진출과 함께 선보가 나날이 발전하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파이다.

6월 출하준비반 최봉순 사원  
“작은 일 하나에도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언제나 출하준비반에는 최봉순 사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다. 출하를 위한 마무리작업이니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독려인 셈이다. 그런 자신을 칭찬주자로 뽑아준 것은 동료들이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할 따름이라고, 특히 함께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주는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작은 일에도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가 든든해 보였다.

9월 영도공장 최명환 사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입사해 9월에 칭찬주자로 뽑힌 최명환 사원은 사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인재이다. 30년이란 경력이 그에게 준 지혜는 ‘늘 한결같이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믿음이다. 우리 회사가 정체되지 않고 활기가 넘쳐서 희망적이라는 최명환 사원은 늘 모범적인 모습으로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12월 2공장 자재지원팀 조경선 팀장  
“쓴소리 이해해주는 구성원들, 모두 고맙습니다!”



2012년 한 해를 달려 온 칭찬릴레이의 마지막 주인공에는 조경선 팀장이 선정되었다. 일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현장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칭찬바통을 받게 되어 부끄럽다고, 우리 회사의 협력사에서 근무하다 그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서 8년전 우리 회사에 입사한 그는 지면을 통해서까지 추운 겨울에는 현장 안전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영암공장 서순일 주임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배관조립을 담당하는 서순일 주임은 언제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한다. 즐겁게 일하다보니 선보에서의 5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고. 칭찬주자에 뽑힌 것이 부끄럽고 당황스럽기만 하다는 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늘 배려해주고 챙겨주는 선임 조장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7월 다대3공장 김충기 주임  
“좋은 사람들과 일하다 보니 제가 칭찬을 만나봅니다”



7월 칭찬주자로 선정된 다대3공장 김충기 주임은 얼떨떨하지만 기분이 좋다며 싱글벙글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2010년 8월에 우리 회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일하면서 특별히 힘든 점은 없지만 굳이 말하자면 업무가 너무 바쁜 점이라는 그는 남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 경영과 비전,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우리 회사가 ‘튼튼하다’며 자부심을 내비쳤다.

10월 영암공장 황창하 조장  
“태풍도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목포 영암공장 생산부서에서 배관조립을 담당하는 황창하 조장. 10월의 칭찬바통을 이어받은 그는 부끄럽지만 ‘칭찬주자’라는 타이틀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지난 여름에 태풍으로 인해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겨도 모두 협조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을 보며 느끼는 것이 많았다는 그는 회사가 잘 되어야 조직원인 개인도 행복할 수 있다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5월 보온팀 배회진 팀장  
“책임감과 친화력이 조직을 강하게 합니다”

8월 선보유틸렉 구평공장 정용수 조장  
“선적을 할 때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p>■ 다대공장</p> <p>다대공장 박기덕 (1.07) 박철현 (1.26) 김숙정 (1.30) 양윤모 (1.01) 유진아 (1.18) 김현진 (1.02) 조경선 (1.18) 서원수 (1.16) 안대준 (1.30) 김태영 (1.20) 이덕수 (1.11) 유영재 (1.08) 이도희 (1.30) 김정민 (1.09) 이창면 (1.05) 박수빈 (1.09) 박홍근 (1.25) 정제경 (1.30) 구태현 (1.15) 이현수 (1.20) 김종민 (1.26) 김여송 (1.19) 조수희 (1.26)</p>		
<p>■ 구평공장</p> <p>구평공장 윤용남 (1.07) 박춘복 (1.26) 김현우 (1.27) 이성일 (1.20) 이성철 (1.27) 최정민 (1.14) 이창주 (1.02) 김준석 (1.06) 이용석 (1.01) 뷔순풍 (1.05) 배종철 (1.27) 정지수 (1.08) 송기열 (1.25) 김명진 (1.12) 와 힙 (1.19) 정종원 (1.05) 손종필 (1.20) 유지형 (1.05)</p>		
<p>■ 영도공장</p> <p>영도공장 최성호 (1.02)</p>		

입사기념일

<p>■ 다대공장</p> <p>다대공장 김혜림 (1.27) 김현진 (1.03) 정혜진 (1.02) 장형구 (1.02) 배회진 (1.02) 한승진 (1.27) 이창호 (1.28)</p>		
--	--	--